

2026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6년 3월 26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김언성	감사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이석우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지호	조사국장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주재현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권도근	의사팀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2025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25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3월 11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동 보고서가 당행 업무 및 조직경영 전반을 다루는 유일한 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여, 각 업무를 균형있게 기술하면서 당행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강조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주요 정책적 역할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취약부문 지원 강화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실적도 수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대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각종 자료 공개, 영문 홈페이지 자료 확충 등 외부와의 소통 노력을 충실히 기술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내부 경영 측면에서는 조직개편 내용, 내부경영 혁신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은행 AI 플랫폼(platform) 구축 등 디지털 역량 고도화 성과를 강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기존 연차보고서에 비해 사진 수록을 확대하는 등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였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이 대체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가독성이 좋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선 의견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우선 일부 위원은 'Ⅰ. 경제 동향'에서 국제금융시장 서술에 일본 국채금리 동향과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Ⅱ. 업무 현황'에서 당행이 참여한 국제금융회의와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교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Ⅲ. 경영 상황'에서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 본문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구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나타내었음.

그 밖에도 일부 위원은 본문 서술에 포함된 소제목들이 본문 내용의 방향성이나 의도를 반영하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25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25년도 연차보고서」(안) (생략)

**<의안 제13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와 제64조에 따라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과정에서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결제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일중당좌대출 제도를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들은 WGBI 편입 관련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중당좌대출 이자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시장기능 활성화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은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징수 면제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징수 면제가 WGBI 편입·안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편입 초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금융기관들이 동 기간 동안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이자면제 조치 이후 금융기관이 일중당좌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는 않는지, 시장의 자금 수급 기능이 원활히 작

동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금융기관의 일중당좌대출 이용현황 및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 유동성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개선, 시장기능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여타 부서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생략)

## 나. 보고안건

### <보고 제25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5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이어서 관련부서는 3월 1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다수 위원들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된 만큼,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가 상승, 중동지역 상황 변화 등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응능력과 충격의 파급경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취약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함께 재무제표상 차입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차입금 부채의 활용에 따른 리스크, 레버리지(leverage) 투자 확대의 영향, 글로벌 사모신용 부실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들은 정부 대응뿐 아니라 당행의 시장안정화 노력도 함께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한편 중동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중동정세 전개 양상에 따라 외환·금융시장에서의 가격변수 움직임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자영업자 및 업황부진 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과 자금조달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음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대책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재확산될 경우 금융불균형 누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됨